

독일 판하임지방법원은 지난 11일 '나치즘' 유죄
인 판결은 사실에 아니었다는 이른바 '아우슈비
츠와 거짓말' 사건으로 기소된 '나치주의'에
대한 판결에서 '말씀듣기'에 관한 판결이
있다며 공감을 표시한 '독일'사와 '독일' 판
사들. 형사부판사 2명을 해임

RECEIVED
JUN 10 1964

문제는 이들 판사가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 10조의 발언은 대하살상 근거로 인용한 것이 1948년 새기동안 제기해온 정치적 도덕적·종교적·인종적 구애 대한 독일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을 손상시키고 평가한데서 비롯.

이같은 접근방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조국통일
의 반응은 양분화 현상은 대방 반대를 도외적
정치적으로 배척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
과거 해운 것은 사민주의적 정파라는 책임은 면
다른 것은 사민주의 정파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
수단을 잘못이라 하여 해운을 반대도 할 수 있다
또한 우리 사민주의가 오히려 반공주의에
몰입하고 있다.